



[유통가 공유경제 활성화] 공유오피스·공유주방 등 청년창업 활성화 앞장 03



Economy

코스피 2102.01 (-66.00)	코스닥 724.22 (-21.15)
금리 (연평균) 1.71 (-0.01)	환율 (원/달러) 1179.80 (+10.40(9일))

# ‘민주주의 복원’ 큰 결실... ‘소주성’ 성과는 글세

(소득주도성장)

## 문재인 정부 2년

복지·재난안전 정책 등 긍정평가 여론 57% “경제정책, 잘못했다” 향후 3년 ‘체감경기’ 중요 잣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이 됐다. (관련기사 2면)

문재인 정부가 2년간 걸어온 행보를 살펴보면 ▲의료비 부담경감과 ▲노후 생활 안정지원, ▲취약계층 사회보장 강화, ▲재난안전체계 구축 등의 국민 체감이 긍정적인 성과로 꼽힌다. 또 ▲세 차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진행된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행보도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인 성과다. 전 정권이 강경했던 외교 정책으로 불거진 한반도 긴장감을 문 대통령이 완화시킨 셈이다.

반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과제들도 상당했다. 뚜렷한 성과 없는 경제 성적표와 제자리걸음 중인 권력기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때 ‘일자리 정책 발표’를 경청하는 모습 /연합뉴스

개혁 등이 이를 방증한다. 그뿐인가. 현재 한반도 정세도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게 이를 방증한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향후 3년 안에는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도 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경제 성과’는 매우 중요해졌다. 국민 10명 중 6

명이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경제정책 국민평가(95% 신뢰 수준·표본오차 ±4.4%p·응답률 6.3%)’를 조사해 9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는 57.3%를, ‘잘했다’는 긍정평가

는 36.7%를 각각 기록했다.

달리 말해,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세계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3월4일 발표한 ‘세계거시전망 2019-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은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무디스는 “고용성장의 부진은 최저임금 탓”이라며 “중소기업계가 임금인상을 경쟁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바다.

외교 성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팽창해온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성인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한반도 평화 정책(95% 신뢰 수준·표본오차 ±4.4%p·응답률 6.9%)’을 조사해 8일 발표했다. 그 결과, ‘매우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는 29.1%를, ‘매우 잘했다’는 긍정 평가는 28.5%를 각각 기록했다.

이와 관련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며 “현 정부가 2년간 많은 행보를 선보였지만 경제·외교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3년간 경제·외교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현 정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한편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관련 가장 큰 변화로 ‘민주주의 복원’을 꼽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행사’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돌아보면, 가장 큰 변화는 국정전반에 걸쳐 모든 일들이 투명화 되고 공개된 틀 속에서 공정히 진행 중”이라며 “바로 민주주의 복원”이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미중 무역전쟁... 코스피·코스닥 폭락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2168.01)보다 66.00포인트(3.04%) 내린 2102.01에,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45.37)보다 21.15포인트(2.84%) 내린 724.22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69.4원) 대비 10.4원 오른 1179.8원에 마감해 9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 금융위, 제2금융권 대출 관리방안

#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 확대 신협 등 집단대출 규제강화

정부가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늘린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저소득 저신용 차주가 몰려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관리해 부실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16년 12.9%에서 지난해 2.9%로 1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해 지난해 38.1%를 차지했다. 전년(33.5%)에 비해 4.6%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를 맞추기 위해 2금융권 가계대출을 관리한다. 오는 6월까지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입할 계획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 중 예대율 규제(80~100%)를 미충족한 조합은 집단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한 분양 사업장에 제공하는 대출한도는 500억원으로 제한한다.

앞서 집단대출 증가속도가 다른 업권보다 빨라 2년간 집단대출이 금지됐던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 금지를 풀어주는 대신 엄격한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신협 수준의 관리기준과 함께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5%(4월 말 기준)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이 도입된다. 차주들이 만기 일시상환 등 갑작스러운 상환 부담에 겪는 어려움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을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까지 43%로, 여전사는 올해 말 10%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5%포인트씩 높인다. /나유리 기자 yu115@

# 판 커지는 증권가 발행어음... KB證도 가세

## 증권위,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한투증권·NH증권과 '3파전'

증권가에서 발행어음사업(단기금융업)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기존에 발행어음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KB증권까지 발행어음 사업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현재 초대형 투자은행(IB)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도 잠재적인 발행어음 사업자 후보다. 증권업계에서는 발행어음 시장 규모가 연내 1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자기자본 한도의 200% 내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초대형IB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KB증권 여의도사옥 전경. KB증권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발행어음 사업 자격을 획득하면서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발행어음 사업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아직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4조 2000억원, 1조8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KB증권까지 가세하면 발행어음 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KB증권은 빠르면 내달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1조 8000억원의 어음을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 발행어음으로 확보한 자금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등 기업금융에 적극 활용하고 발행어음 금리는 연 2% 내외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을 잇는 다음 발행어음 사업자도 관심을 끈다. 업계에서는 현재 초대형IB 인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를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다.

(8면에 계속) /김유진 기자 ujin6326@